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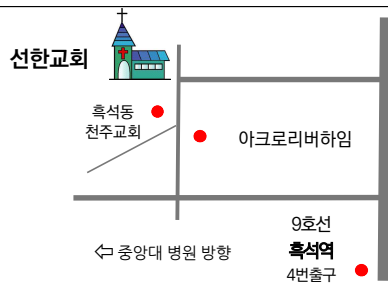
## 예배 및 모임 시간 안내

|                  |                |                        |                        |
|------------------|----------------|------------------------|------------------------|
| <b>주 일 예 배</b>   | 1부 주일 오전 9:30  | <b>부서 예배 및 모임 (주일)</b> |                        |
|                  | 2부 주일 오전 11:00 |                        |                        |
| <b>오 후 예 배</b>   | 주일 오후 3:30     | 유 아 부                  | 오전 11:00 남전도회 오후 2:00  |
|                  | (5째주 셀가족모임)    | 유 초 등 부                | 오전 11:00 바 울 회 오후 2:00 |
| <b>중 국 어 예 배</b> | 주일 오후 4:00     | 청 소 년 부                | 오전 9:50 마리아회 오후 2:00   |
| <b>수 요 예 배</b>   | 수요일 저녁 7:30    | 청 년 부                  | 오후 1:00 드보라회 오후 2:00   |
| <b>금 요 기 도 회</b> | 금요일 저녁 8:30    | 영 어 예 배                | 오후 3:30 에스더회 오후 2:00   |
| <b>새 벽 예 배</b>   | 월-금요일 새벽 5:30  |                        |                        |
|                  | *월삭새벽예배 6:00   |                        |                        |
| <b>셀 가족 모임</b>   | 셀별로 정한 시간      |                        |                        |

## 섬기는 분들

|                |                   |                  |                      |
|----------------|-------------------|------------------|----------------------|
| <b>사 역 자</b>   | <b>담임목사 임 춘 배</b> | <b>협력 선교사</b>    | 강 성 규 (러시아)          |
|                | 교 육 목 사 권 인 혁     | <b>국 내 선 교 사</b> | 오 인 숙, 한 배 선         |
|                | 전임전도사 김 진 만       | <b>협 력 교 회</b>   | 기쁨교회 (유성은목사)         |
|                | 협력전도사 오 호 남       |                  | 주의뜰교회 (김대열목사)        |
| <b>은 퇴 장 로</b> | 김 대 희, 박 희 태      |                  | 주안예교회 (이정필목사)        |
| <b>장 로</b>     | 유 신 웅 (집사장)       |                  | 가슴뛰는교회 (원종선목사)       |
|                | 조 윤 익, 고 상 돈      | <b>관 리 장 로</b>   | 손 석 규                |
|                | 박 영 근, 조 계 승      | <b>500/50 교회</b> | (1호) 필리핀 Good Church |
|                | 윤 호 중             |                  | (2호) 세종 선한교회(신원섭 목사) |

## 선한교회 오시는 방법



버스 151, 350, 360, 462,  
640, 642, 752(효사정앞 하차)  
지선 6411, 5524, 5511, 5517(종점)  
광역 9408  
마을버스 동작01, 10, 21(중앙대병원)

지하철 9호선 흑석역 4번출구 (도보 5분)  
7호선 상도역  
\*5번 출구 하차 후 마을버시아용(동작 01, 10, 21)

06910 서울 동작구 흑석로13마길 1 (흑석동 173-30)

대표전화 (02) 815-6213 FAX (02) 815-6065 홈페이지 <http://www.sunhan.org>

## 표 어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행 18:10)

I Have Many People in this city

실 천 사 항 지역봉사 전도 / 기도 선교사의 삶

|                |           |                 |
|----------------|-----------|-----------------|
|                | 교회에 대하여 : | 같은 마음을 품고 동역하자  |
| <b>삶 의 방 식</b> | 개인에 대하여 : |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자    |
| (빌 4:1-7)      | 성도에 대하여 : |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자 |
|                | 문제에 대하여 : |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4~5)



기 독 교 선한교회  
한국침례회

담임목사 임 춘 배

|          |                       |  |
|----------|-----------------------|--|
| 오전<br>예배 | 오전 9:30               |  |
|          | 오전 11:00 인도자 : 임춘배 목사 |  |
| 기원       | 인도자                   |  |
| 찬양과경배    | 32장 (통일찬송가 48장)       |  |
| 교독문      | 교독문 16번 (시편 28편)      |  |
| 찬양과경배    | 352장 (통일찬송가 390장)     |  |
| 예배기도     | 윤호중 장로                |  |
| 찬양       | 드림성가대                 |  |
| 말씀봉독     | 사도행전 19장 21~41절       |  |
| 설교       | 제3차 선교여행2 (임춘배 목사)    |  |
| 헌금드림     | 김현석 김희상 박대수           |  |
| 환영및광고    | 인도자                   |  |
| 파송의노래    | 선한 능력으로               |  |
| 축도       | 임춘배 목사                |  |
| 송영       | 드림성가대                 |  |
| 성도의교제    | 다함께                   |  |

|          |         |                                                 |            |              |
|----------|---------|-------------------------------------------------|------------|--------------|
| 주일<br>오후 | 오후 3:30 |                                                 | 예배장소 : 본 당 | 인도자 : 임춘배 목사 |
|          | 찬양      | JOY AND                                         |            |              |
|          | 대표기도    | 이성범 집사                                          |            |              |
|          | 말씀      | 기독교변증 7강 (롬1:28-32)<br>하나님은 왜 악을 허용하시는가? 임춘배 목사 |            |              |
|          | 광고 및 축도 | 임춘배 목사                                          |            |              |

|           |                               |  |            |              |
|-----------|-------------------------------|--|------------|--------------|
| 수요일<br>예배 | 오후 7:30                       |  | 예배장소 : 본 당 | 인도자 : 임춘배 목사 |
|           | 영적분별력의 문제 (렘44:20~30절) 임춘배 목사 |  |            |              |

- 교회소식

- 예배 중에는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배 10분 전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해외단기선교

7월29일(월)~8월3일(토) 캄보디아

※ 단기선교팀 기도제목을 마련하였습니다. 보시면서 하루에 한번 10분 이상 기도에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늘 오후 예배 후 청년부실에서 선교준비 모임이 있습니다.
2. 선한행전 서포터즈 모집

함께 전도 교육을 받으며 한국에서의 중보사역을 준비할 서포터즈를 모집합니다.

문의 : 이소영집사(해외선교부장), 김진만 전도사

방법 : 매 주일 오후 5시 선교모임에 함께 참석해주시면 됩니다.
3. 선교지에 여름옷 보내기

각 가정에 입지 않은 옷들이 있으시면 이번 단기선교때 캄보디아에 전달할 수있도록 자원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탁이 된 상태로 1층 로비에 마련될 수거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6. 전교인수련회

전교인 수련회가 8월 4일(주일)~6일(화) 일정으로 양평에 위치한 Kobaco 연수원에서 진행됩니다.

| 5월 오후예배 일정                 |         |          |         |         |         |      |
|----------------------------|---------|----------|---------|---------|---------|------|
| 날짜                         |         | 제목       |         |         | 강사      |      |
| 6월 2일                      |         | 기독교변증 5강 |         |         | 임춘배 목사  |      |
| 6월 9일                      |         | 기독교변증 6강 |         |         | 임춘배 목사  |      |
| 6월 16일                     |         | 기독교변증 7강 |         |         | 임춘배 목사  |      |
| 6월 23일                     |         | 기독교변증 8강 |         |         | 임춘배 목사  |      |
| 6월 30일                     |         | 셀 별 모 임  |         |         | 다 함 께   |      |
| 2019년 성경강론 범위              |         |          |         |         |         |      |
| 6/9                        | 6/10    | 6/11     | 6/12    | 6/13    | 6/14    | 6/15 |
|                            | 시편 145편 | 시편 146편  | 시편 147편 | 시편 148편 | 시편 149편 |      |
| ※매주 성경통독 내용과 암송구절은 주보를 참조. |         |          |         |         |         |      |

|              |                                                                                              |
|--------------|----------------------------------------------------------------------------------------------|
| 한주간의<br>기도제목 |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함으로 주께 영광돌리기를<br>살아계신 하나님과 늘 동행함으로 주를 알아가기를<br>영원한 왕의 다스림에 순복함으로 주의 기쁨이 되기를 |
|--------------|----------------------------------------------------------------------------------------------|

## [가정예배] 하나님의 예정하심

찬송 :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304장(통 404장)

본문 : 에베소서 1장 4~6절

말씀 :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태어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축복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으로 이루어졌음을 밝히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계획을 아예 창세 전부터 세워 놓으셨다는 말씀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오늘 이 시대에 겪고 있는 문제들을 우리의 입장에서 설명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그는 오히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관점, 곧 하나님의 예정하심에서부터 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정의 원리를 깨달았습니다. 4절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만들어진지도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했지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미리 축복의 자녀로 예정하시고 택하셨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엄청난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이 예정이 하나님의 비밀에 속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 예정의 세부적인 것을 미리 알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죄와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성경대로 전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 전부터’ 예정되었다는 사실에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사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음을 깨달았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사도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지배를 받는 그 당시에 ‘왕족이나 귀족의 아들’이 되는 것은 가장 놀라운 복 중의 하나로 인식되었기 때문이지요.

로마의 진정한 모습은 자기 핏줄보다 능력 있는 자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던 그 정신이 살아있을 때 더욱 부각되었습니다. 이처럼 입양이 출세로 여겨졌던 그런 시대에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까 그분의 아들답게 행하며 살자’는 진정한 의도를 밝혀 줍니다.

사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고자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완전함을 추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흠과 티가 수두룩한 우리를 흠 없는 어린 양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고자’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합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하게 만들었지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영원 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예정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자기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영원히 찬송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송과 함께 진정으로 변화된 우리 자신을 더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된 우리 몸 자체가 찬송이 될 것이며 그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로 충만할 때 진정한 아들로 살게 될 것입니다.

## 은혜의 말씀

제목

제3차 선교여행2 (행 19:21-41)

서론

바울은 제3차 여행 중 에베소에서 선교하며 큰 소동을 겪습니다.

본론

### 1. 에베소 선교2

- (1) 바울의 소원: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21절)
- (2) 바울의 위기: 복음을 반대하는 소동
- (3) 하나님의 역사: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해산시킴

### 2. 교훈

- (1)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비전을 갖자.
- (2) 자기 이익을 위해 신앙을 이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자.
- (3) 하나님께서는 참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을 돕는다

결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비전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과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 예배 섬김이

| 오늘 섬기실 분 |             | 다음 주 섬기실 분  |
|----------|-------------|-------------|
| 예배기도     | 윤호중 장로      | 박영근 장로      |
| 헌 금 위 원  | 김현석 김희상 박대수 | 백미경 서진화 신영문 |
| 오후예배 기도  | 이성범 집사      | 최영석 집사      |

| 매일 성경 강독       |                                                                                                                                                                                                                                                                                                                                                                                                                                                                                                                                                                                                                     |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 | 날짜 : 6월 10일 |
|----------------|---------------------------------------------------------------------------------------------------------------------------------------------------------------------------------------------------------------------------------------------------------------------------------------------------------------------------------------------------------------------------------------------------------------------------------------------------------------------------------------------------------------------------------------------------------------------------------------------------------------------|-------------|-------------|
| 찬양             | 주님 찾아 오셨네 (찬송가 534장 / 통일 찬송가 324장)                                                                                                                                                                                                                                                                                                                                                                                                                                                                                                                                                                                  |             |             |
| 통독             | 시편 145편                                                                                                                                                                                                                                                                                                                                                                                                                                                                                                                                                                                                             |             |             |
| 본문 내용          | <p>다윗은 이 시에서 하나님이 구주이심을 생각하고 찬송한다. 그는 하나님을 왕이라고 하였고(1절), 그의 이름을 높였으며(2절) 그 하나님은 위대하시어 모든 구원하시는 기사들을 많이 행하신다(3-6절)고 찬송한다. 또한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만물도, 하나님이 만유의 하나님이시고, 지으신 모든 만물에 긍휼 베푸심을 감사하고 있다(7-10절). 세상의 모든 만물은 주의 나라의 영광을 찬송하는데, 주의 나라는 영원하고 대대에 이르도록 그 능력은 넘쳐날 것을 말한다(11-13절). 주의 나라는 특별히 낮아진 자를 일으켜 주시는 통치이다(14절). 다윗은 모든 생물에게 식물을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찬양하고 있으며(15-16절), 의로우시고 또 은혜로우시며 신자들의 진실한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이신 줄 알고 찬송한다(17-19절). 마지막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찬송한다(20-21절) .</p>                                                                                                                                                |             |             |
| 생각해보기          |                                                                                                                                                                                                                                                                                                                                                                                                                                                                                                                                                                                                                     |             |             |
| 1              | <p>모든 육체가 송축할 하나님의 성호</p> <p>(1) 다윗이 지은 것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에 대한 찬양시로 총 29 편의 감사 예배시 중 하나</p> <p>(2) 본시는 119편처럼 히브리어 알파벳순으로 각 절의 첫 머리가 시작되는 ‘답 관체’시임</p> <p>(3) 전반부 1,2절에서는 ‘주를 송축하리이다’라는 말을 세 번씩이나 반복하면서 여호와와 이름을 찬양하겠다는 시인의 결의에 찬 다짐을 밝히고 중반부 3-20 절에서는 여호와를 찬양해야 하는 당위성을 세가지로 제시함(여호와와 무한하고 위대하신 능력과 행사(3-6), 은혜와 자비가 풍성한 우주의 주권적 통치자로서의 여호와와 영광(7-13),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는 구원과 보호의 의로운 역사(17-20))</p> <p>(4) 후반부 21절에서 시인은 다시 한번 여호와와 광대하심과 영예로우심을 영원히 찬양할 것을 다짐하며 또한 만민을 향하여 여호와를 찬양하도록 촉구함으로써 본시를 맺음</p> <p>(5)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계시는 여호와하나님께서 만세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송축받기에 합당하시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p> |             |             |
| 핵심 단어          | <p>2절. 날마다. 당시 이스라엘을 성전에서 찬양을 맡은 레위인들이 밤낮으로 끊이지 않고 찬양으로 드렸다.</p> <p>3절. 측량치 못하리로다. 인간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하고 있다.</p>                                                                                                                                                                                                                                                                                                                                                                                                                                                                                           |             |             |
|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                                                                                                                                                                                                                                                                                                                                                                                                                                                                                                                                                                                                                     |             |             |
| 기도제목           |                                                                                                                                                                                                                                                                                                                                                                                                                                                                                                                                                                                                                     |             |             |

| 셀 모임 나눔지   |                                                                                                                                                                                                                                                                                                                                                                                                                                                                                                                                                                                                                                                                                                      | “씩은 베띠와 가득 찬 포도주” |
|------------|------------------------------------------------------------------------------------------------------------------------------------------------------------------------------------------------------------------------------------------------------------------------------------------------------------------------------------------------------------------------------------------------------------------------------------------------------------------------------------------------------------------------------------------------------------------------------------------------------------------------------------------------------------------------------------------------------|-------------------|
| 찬양과 기도     | 왕 되신 주께 / 어저께나 오늘이나 (135장/통 133장)                                                                                                                                                                                                                                                                                                                                                                                                                                                                                                                                                                                                                                                                    |                   |
| 묵상 나눔      |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와 삶에 적용한 말씀들을 나누어 보세요.                                                                                                                                                                                                                                                                                                                                                                                                                                                                                                                                                                                                                                                            |                   |
| 이야기 속으로    | <p>1차 세계대전의 상처가 채 아물지 않은 1930년대 말, 유럽에는 전운이 감돌았습니다. 독일에서 권력을 장악한 히틀러가 신무기와 신전략 개발, 기갑 부대 창설, 공군력 강화를 통해 빠른 속도로 군사력을 확장해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직 재무 장관이던 영국 수상 체임벌린은 단지 체코의 주데텐란트(Sudetenland) 합병만을 원한다는 히틀러의 속임수에 넘어가 이를 용인하는 ‘뮌헨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그는 마침내 평가가 도래했다며 영국인들을 안심시켰습니다. 해군 장관이던 윈스턴 처칠이 지속적으로 히틀러의 전쟁 야욕에 대해 경고하며 공군력 강화로 독일의 공습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939년 9월, 뮌헨 평화 협정이 체결된 지 6개월 만에 히틀러가 ‘블리츠크리그’(Blitzkrieg, 전격전) 작전으로 폴란드를 침공함으로써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습니다.</p> <p>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주요 리더십은 왕, 제사장,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의 임무는 사회에 만연한 죄악과 임박한 심판에 대해 경고함으로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도록 제사장에게로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선지자가 자신의 역할을 잊거나 거짓된 평화의 메시지를 전할 때,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백성이 안일하게 대할 때 어떤 운명을 맞게 되는지 역사는 잘 말해 주고 있습니다.</p> |                   |
| 말씀 나누기     | 예레미야 13:1~14                                                                                                                                                                                                                                                                                                                                                                                                                                                                                                                                                                                                                                                                                         |                   |
| 묵상포인트      | <p>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민족으로 선택받았습니다. 그러나 교만하게 하나님과 말씀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교만으로 쌓은 모든 것을 썩게 하셔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베띠처럼 만드십니다. 교만은 영광을 수치로 바꾸는 어리석음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특권을 부여받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맡은 이들입니다. 이를 소홀히 여기고 교만하게 행하면, 하나님은 은혜로 주신 영광을 수치로 바꾸십니다. 거룩한 영향력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겸손히 감당하는 데서 나옵니다. 특권이 사명임을 알고 겸손히 순종할 때 복과 은혜가 임합니다.</p>                                                                                                                                                                                                                                                                                                                                                                          |                   |
| 나에게 주신 메시지 |                                                                                                                                                                                                                                                                                                                                                                                                                                                                                                                                                                                                                                                                                                      |                   |
| 관찰과 묵상     |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었던 베띠는 여러 날 후에 어떻게 되었나요? 이를 통해 하나님이 교훈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1~11절)                                                                                                                                                                                                                                                                                                                                                                                                                                                                                                                                                                                                                                |                   |
| 적용하기       | 교만으로 인해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했던 일을 나누어 보세요. 교만했던 마음을 버리고 겸손히 새롭게 시작할 일은 무엇인가요?                                                                                                                                                                                                                                                                                                                                                                                                                                                                                                                                                                                                                                |                   |
| 함께 기도하기    | 주님이 은혜로 주신 특권을 제 것인 양 여기는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영광을 수치로 바꾸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의 경고에 겸손히 반응하고 끝까지 주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하소서.                                                                                                                                                                                                                                                                                                                                                                                                                                                                                                                                                                                       |                   |
| 나의 기도문     |                                                                                                                                                                                                                                                                                                                                                                                                                                                                                                                                                                                                                                                                                                      |                   |
| 기도 (중보기도)  |                                                                                                                                                                                                                                                                                                                                                                                                                                                                                                                                                                                                                                                                                                      |                   |

| 매일 성경 강독       |  | 보수와 심판하시는 하나님 찬양                                                                                                                                                                                                                                                                                                                                                                                                             |  | 날짜 : 6월 14일 |  |
|----------------|--|------------------------------------------------------------------------------------------------------------------------------------------------------------------------------------------------------------------------------------------------------------------------------------------------------------------------------------------------------------------------------------------------------------------------------|--|-------------|--|
| 찬양             |  | 주 예수 이름 높이어 (찬송가 37장 / 통일 찬송가 37장)                                                                                                                                                                                                                                                                                                                                                                                           |  |             |  |
| 통독             |  | 시편 149편                                                                                                                                                                                                                                                                                                                                                                                                                      |  |             |  |
| 본문 내용          |  | 시인은 성도들이 그 구원으로 인하여 찬송해야 될 것을 강조한다 성도들이 받은 구원은 하나님께서 창조자로서 성립시키셨고 왕으로 이루셨다(1-2절). 그들은 겸손함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고(3-4절), 이 구원으로 기뻐하며 열방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된다(5-9절).                                                                                                                                                                                                                                                                           |  |             |  |
| 생각해보기          |  |                                                                                                                                                                                                                                                                                                                                                                                                                              |  |             |  |
| 1              |  | 구속받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 찬양촉구<br>(1) 저자 미상의 감사 예배시로 148편과(하나님께 대한 전우주적 찬양 촉구) 내용적으로 대구를 이루며 구속주 하나님께 대해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중적 찬양을 촉구하는 시<br>(2) 전반부 1-4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창조자요 왕이시며 과거의 역사 속에서 원수들의 손에서 그들을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촉구하고 이어 후반부 5-9절에서는 하나님의 공의의 시행에 따른 악인에 대한 심판과 그 백성이 얻게 될 영광을 언급함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성도들의 찬양의 필연성을 부각시킴<br>(3) 지금도 하나님의 은총가운데 살아가며 장차 맞이하게 될 영원한 구원의 기쁨과 영광을 소망하는 성도들은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날마다 찬양해야 한다. |  |             |  |
| 핵심 단어          |  | 1절. 새 노래. 구원의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담은 노래를 뜻한다.<br>2절. 저희의 왕. 이스라엘의 실제적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가리킨다.<br>6절. 두 날 가진 칼. 전쟁용 무기로 성경에서 승리의 상징으로 사용된다.                                                                                                                                                                                                                                                                                                  |  |             |  |
|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  |                                                                                                                                                                                                                                                                                                                                                                                                                              |  |             |  |
| 기도제목           |  |                                                                                                                                                                                                                                                                                                                                                                                                                              |  |             |  |

| 매일 성경 강독       |                                                                                                                                                                                                                                                                                                                                                                                                                                | 의지할 분이신 하나님 |  | 날짜 : 6월 11일 |  |
|----------------|--------------------------------------------------------------------------------------------------------------------------------------------------------------------------------------------------------------------------------------------------------------------------------------------------------------------------------------------------------------------------------------------------------------------------------|-------------|--|-------------|--|
| 찬양             |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가 26장 / 통일 찬송가 14장)                                                                                                                                                                                                                                                                                                                                                                                              |             |  |             |  |
| 통독             | 시편 146편                                                                                                                                                                                                                                                                                                                                                                                                                        |             |  |             |  |
| 본문 내용          | 시인은 하나님을 찬송함에 있어서 한 평생 하겠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사람은 믿을 바 되지 못하나 하나님은 영원히 믿을 수 있기 때문이다(1-5절). 시인이 그렇게 믿는 이유는 여호와와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참된 신이시기 때문이며 그 백성과의 계약과 그 실행에 있어서, 진실하시기 때문이다(6절). 인자하신 여호와와는 악한 자를 들어 높이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악한 자를 처단하신다 (7-10절).                                                                                                                                                                                                |             |  |             |  |
| 생각해보기          |                                                                                                                                                                                                                                                                                                                                                                                                                                |             |  |             |  |
| 1              | 영원하고 의로운 여호와와 통치<br>(1) 146-150편은 다윗의 감사예배 시로 처음과 끝이 할렐루야로 되어 있어 ‘할렐루야 시편’들로, 유대 전승상으로는 ‘제3 할렐시 모음집’에 해당됨<br>(2) 먼저 전반부 1-5절은 찬양받으시기에 가장 합당하신 만유의 주되신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겠다고 서원하는 부분이고 중반부 6-9절은 하나님께 대한 찬양의 이유로서 여호와와 창조 능력과 공의, 구원, 사랑, 보호하심을 제시함. 끝으로 후반부 10절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통치를 찬양함<br>(3) 인간의 나라와 통치는 유한하고 불완전하지만 주님의 나라와 통치는 영원하고 완전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은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수 있으므로 하나님께 대한 찬양 또한 언제나 오늘이나 그침이 없이 영원해야 할 것이다. |             |  |             |  |
| 핵심 단어          | 3절. 방백들. 세상을 통치하는 권력자들을 가리킨다.<br>4절. 돌아가서. '거주하다'라는 뜻으로 사람이 죽어 무덤에 장사되는 것을 말한다.                                                                                                                                                                                                                                                                                                                                                |             |  |             |  |
|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                                                                                                                                                                                                                                                                                                                                                                                                                                |             |  |             |  |
| 기도제목           |                                                                                                                                                                                                                                                                                                                                                                                                                                |             |  |             |  |

| 매일 성경 강독 |  | 영육간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 찬양                                                                                                                                                                                                                                                                                                                                                                                                                                                                                    |  | 날짜 : 6월 12일 |  |
|----------|--|-------------------------------------------------------------------------------------------------------------------------------------------------------------------------------------------------------------------------------------------------------------------------------------------------------------------------------------------------------------------------------------------------------------------------------------------------------------------------------------------------------|--|-------------|--|
| 찬양       |  | 죄 짐을 지고서 곤하거든 (찬송가 538장 / 통일 찬송가 327장)                                                                                                                                                                                                                                                                                                                                                                                                                                                                |  |             |  |
| 통독       |  | 시편 147편                                                                                                                                                                                                                                                                                                                                                                                                                                                                                               |  |             |  |
| 본문 내용    |  | 이 시인은 이스라엘의 흠어진 자들을 불러모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한다(1-3절). 그는 하나님의 이와 같은 구원 행위가 하늘의 별을 지배하는 것과 같은 능력으로 되어졌다고 말한다(4-5절). 경솔한 자를 볼드시고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6-7절),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식물을 주시고,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에게까지 먹을 것을 주시는 자비하심 때문이다(8-9절). 한편,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병력에 의한 국방을 믿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으라고 교훈한다. 특히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민족과는 달라서 여호와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한다(10-14절). 이 시인은 자연계를 통하여 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고 찬송한다. 눈이나 서리, 우박, 추위, 바람 같은 것은 모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다(15-18절). 시인은 마지막에서도 이스라엘 에게 율례의 규례를 주신 하나님께 찬송한다(19-20절). |  |             |  |
| 생각해보기    |  |                                                                                                                                                                                                                                                                                                                                                                                                                                                                                                       |  |             |  |
| 1        |  | 이스라엘의 회복자, 하나님께 대한 찬양<br>(1) ‘할렐루야 시편’의 하나인 본시는 개인적인 감사 예배시인 146편과 달리 민족 공동체적 감사 예배시인 147-150편 가운데 첫 번째 것으로, 모든 피조물을 섭리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고통당하는 선민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를 찬양함<br>(2) 전반부 1-6절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중반부 7-11절은 모든 자연 만물을 친히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이러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후반부 12-20절은 통치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영육간의 축복을 각기 제시함<br>(3) 현재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분의 영원하고 완전한 통치하심 속에서 있게 될 것을 소망할수 있는 성도들에게는 참된 평화와 기쁨의 찬양만이 넘쳐날 수 밖에 없다.                   |  |             |  |
| 핵심 단어    |  | 13절 .견고히. 어떤 수단으로도 넘어뜨리거나 깨뜨리지 못할 만큼 단단한 상태를 가리킨다.<br>14절. 경내. 국가와 국가의 영토를 구분짓는 경계선을 가리킨다. 아름다운 밭. 가장 좋은 밭, 즉 최상의 식물을 의미한다.<br>15절. 명. 우주 삼라 만상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섭리 명령을 가리킨다. 속히 달리는도다. 하나님의 섭리 명령은 조금도 어긋남이 없이 곧바로 실현되어짐을 말한다.                                                                                                                                                                                                                                                                             |  |             |  |
|          |  |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  |             |  |
| 기도제목     |  |                                                                                                                                                                                                                                                                                                                                                                                                                                                                                                       |  |             |  |

| 매일 성경 강독       |  | 모든 피조물의 찬양                                                                                                                                                                                                                                                                                                                                                                                                                                                                                                       |  | 날짜 : 6월 13일 |  |
|----------------|--|------------------------------------------------------------------------------------------------------------------------------------------------------------------------------------------------------------------------------------------------------------------------------------------------------------------------------------------------------------------------------------------------------------------------------------------------------------------------------------------------------------------|--|-------------|--|
| 찬양             |  |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찬송가 531장 / 통일 찬송가 321장)                                                                                                                                                                                                                                                                                                                                                                                                                                                                            |  |             |  |
| 통독             |  | 시편 148편                                                                                                                                                                                                                                                                                                                                                                                                                                                                                                          |  |             |  |
| 본문 내용          |  | 시인은 무엇보다도 먼저 하늘 위에 있는 자들의 찬송을 독촉한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만큼,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찬송할 처지에 놓여 있다(1-6절). 또한 시인은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한다(7-13절). 이 부분에 있어서 그는 산들과 주옥과 짐승들까지도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함으로써, 인간은 당연히 찬송해야 될 것을 암시한다. 시인은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 대한 찬송의 중요성이 지극히 큰 사실을 역설한다(14절).                                                                                                                                                                                                                                         |  |             |  |
| 생각해보기          |  |                                                                                                                                                                                                                                                                                                                                                                                                                                                                                                                  |  |             |  |
| 1              |  | <p>창조주께 대한 전 우주적 찬양축구</p> <p>(1) 본시는 저자 미상의 감사 예배시임. 마치 온 우주가 웅장한 오케스트라가 되어 장엄한 교향악을 연주하는 듯한 느낌을 줌으로써 시의 전체 분위기가 힘차고 박진감 넘치게 흐르고 있음</p> <p>(2) 1-6절에서는 하늘 위에 있는 모든 존재들을 향하여 그것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요청하고 7-10절에서는 지상 세계와 바다에 사는 모든 피조물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요청함. 다음 11-13절에서는 이 세상의 피조세계를 위임받은 모든 인류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요청하고 끝으로 14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가장 구체적으로 계시받은 선민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요청함</p> <p>(3) 하나님께 지음받은 모든 피조물은 그 창조자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한 의무이고 그 어떤 피조물보다 가장 존귀히 여김을 받고 그 은혜를 힘입는 인간들이야말로 더 크고 확실하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이 마땅하다.</p> |  |             |  |
| 핵심 단어          |  | <p>2절. 사자. 하나님의 천사들을 가리킨다. 군대. 원어는 '무리, 별들'을 뜻한다. 여기서는 천사들을 의미한다.</p> <p>6절. 패치 못할 명. 우주를 지배하는 하나님의 법칙을 어떤 피조물도 거역하지 못함을 의미한다.</p>                                                                                                                                                                                                                                                                                                                                                                               |  |             |  |
|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  |                                                                                                                                                                                                                                                                                                                                                                                                                                                                                                                  |  |             |  |
| 기도제목           |  |                                                                                                                                                                                                                                                                                                                                                                                                                                                                                                                  |  |             |  |